● 펴낸날－이천년 구월 ● 펴낸곳－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 펴낸이－최영애 ● 만든이－임민희 ● 편집－태성커뮤니케이션 TEL 2285-6846~8 ●

나눔터

2000 · 9 · 계간

제35호

이런 일을 합니다 2
이렇게 생각한다 ■김경위 사건을 보면서
여기는 상담실 ■지도층 성추행을 짚어본다
성평등교육문화센터 ■'훌쩍 크는 여름 캠프'를 다녀온 후

성폭력 문제 연구소 9
■장애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인권 홍보부 ■토론회 "스포츠의 성차별"
21세기 여성 · 미디어운동센터 ■TV만화 영화 속으로
성문화 읽기 ■월경페스티발을 다녀와서

기획 13
■인터넷에서 찾은 여성해방 공간
오늘의 쟁점 ■호주제를 넘어 평등한 관계로
해외소식 ■캐나다 여성신문사와 함께

이런 일을 했습니다 18
■나눔터 게시판

훌쩍 크는

장소:지리산 느티나무 산장 주최:(사)한국성폭력상담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51-12 가람빌딩 5층 (135-270)
일반상담 · 열림터 02-529-4271~2
사무전화 02-576-7128, 576-5513~4 팩스 02-576-7127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천리안 ID : KSVRC ▪천리안, 넷츠고, 채널아이 IP : go stoprape ▪E-Mail : ksvrc@thrunet.com ▪홈페이지 : http://www.sisters.or.kr

이런 일을 합니다

육아시설 보육교사를 위한 성교육 워크숍– 전주, 대전

성평등교육문화센터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을 받아 육아시설 보육교사를 위한 성교육 워크숍을 9월에서 11월 중에 전국 5개 지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육아시설 2곳에서의 성교육과 캠프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교육 교사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 지식과 함께 육아시설의 특성에 맞춘 대상별 성교육 프로그램을 전달할 계획이다.

- 1차 워크숍: 광주 · 전라도 지역 – 전주 (9/4~5일)
- 2차 워크숍: 대전 · 충청도 지역 – 대전 (9/25-26일)
- 3차 워크숍: 대구 · 경상북도 지역 – 대구 (10/5-6일)
- 4차 워크숍: 부산 · 경상남도 지역 – 부산 (10/19-20일)
- 5차 워크숍: 서울 · 경기 · 제주도 지역 – 서울 (11/2-3일)

2000 성평등 만들기 사이버 연속토론회 〈제2차 토론회〉

"단지 그대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 기간 : 9월 29일 ~ 10월 5일(일주일) / 천리안, 유니텔, 채널아이, 넷츠고

양성평등 운동으로 인해 남성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짚어보고, 이 역시 왜곡된 성역할 규정에서 비롯되었음을 확인하여 남녀 모두가 평등문화의 주체로 나서야 함을 느끼기 위해 마련된 사이버 연속 토론회. 이번에는 "남성들의 가족 생계부양 부담" 문제를 다룬다.

성폭력 피해 상담사례연구모임

1. 전화상담사례연구 첫째 월요일 오후 1시 수퍼바이져 김순진 (서울상담심리센터 소장)
2. 면접상담사례연구 셋째 금요일 오후 2시 수퍼바이져 정남운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3. 야간상담사례연구 넷째 토요일 오후 4시 수퍼바이져 권해수 (한국청소년상담원 선임상담원)

성폭력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

: 서울시 여성 발전기금 지원. 본 상담소와 서울 여성의 전화 주관.

■ 성폭력 ·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메뉴얼, 의료진 메뉴얼 제작 및 배포

10월말까지 제작 · 배포될 예정이며 각 경찰서, 국 · 공립병원과 종합병원 응급실, 개인병원, 보건소, 각 상담기관에서 활용 될 것이다.

■ 성폭력 · 가정폭력 상담자 심화 워크숍

- 일시 : 10월 12,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장소 : 여성사회교육원 (장충동)
- 참가대상 : 현장에서 1년 이상 활동한 상담자
- 프로그램 내용 : 상담사례발표 및 수퍼비젼, 가정폭력가해자 프로그램, 외국의 지원체계, 성폭력피해자의 심리와 후유증상담, 성폭력피해자의 집단상담, 성폭력 사건 연계지원사례 발표, 성폭력 · 가정폭력사건 법적 연계시 유의점

■ 성폭력 ·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통합적 연계지원 워크숍

- 일시 : 11월 14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 장소 :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
- 참가대상 : 성폭력 · 가정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사람들 (각 상담기관 상담자, 성폭력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여성관련시설 담당자, 경찰, 변호사, 의료진, 전문심리상담가, 사회복지사, 여성정책담당관, 피해자보호자 등)
- 프로그램 내용 : 심리상담, 법률적 · 의료적 · 사회복지적 지원의 통합적 연계 확립방안 토론

엄마 좀 살자!

– 김경위 사건을 보면서

김효선 (여자와닷컴 사장)

여학생 시절의 친구들 중에는 가슴아픈 사연을 지닌 아이들이 있었다. 한 남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후에, 또 다른 가정을 꾸리게 되었을 때 생겨나는 비운의 주인공들이다. 이 아이들은 아버지의 본처를 큰어머니라고 불러야 했다. 생모는 호적상 처녀로 남아 있고, 큰어머니가 이 아이들의 호적상 친권자가 되는 것이다.

조금 철이 들면서 내 주변에 이런 '출생의 비밀'이 있는 사람들을 의외로 많이 만났다. 아니 그 때 만난 게 아니라, 예전부터 내 주변에 그런 이들이 많았는데, 세상 보는 내 눈이 뜨이질 않아서 알아보질 못했던 것이다. 하여튼 눈이 좀 밝아지고 나서 보니 이 세상은 나쁜 아버지들이 너무나도 잘 살아가는 요지경 속이었다.

첩 또는 작은 어머니라 불리는 생모를 가진 아이들의 상처란 평생 잊혀지지 않을 깊고 심각한 것인데, 이런 슬픈 일은 결국 두 여자를 거느리는 남자들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일부일처제가 법으로 보장된 이 나라에서 이런 남자들이 왜 그리도 많으며, 또 이들은 왜 그리도 당당하게 잘 살아가는가? 생각할수록, 약오르는 일 아닌가? 절도 없는 남자들 때문에 항상 '정식'이 아니고 '본류'가 아닌 비주류 콤플렉스를 가지고 살아야 했던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한창 분하고 억울해 했던 기억이 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이들이야말로 '패륜 아버지'였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이런 패륜 아버지들이 엄청 많았다. 최근까지도 말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패륜 아버지들은 '패륜'이라는 이유로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잘했다고 박수는 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로 남자들이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한다든지, 사회에서 쌓아올린 명성이 물거품으로 돌아간다든지 하는 일은 생각도 하지 못했다. 변변히 질책 한번 하지 못한 채로 '그 때 남자들은 다 그랬어'라는 말로서 우리의 억울함과 한을 달래왔다. 오죽하면 '미워도 다시 한번' 시리즈가 그리도 대성공을 거두었을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 많던 '패륜 아버지'들은 사회적으로 승승장구, 더 큰 권력과 부를 가지면서 자신을 발전시켜 나아갔다.

최근에 간신히 성공의 계단에 올라선 한 공직자가 파멸의 비운을 맞았다. '패륜'이라는 이름으로 이 여성공직자는 비난당하고, 단죄당했다. 그것도 친구처럼 친했다는 친딸의 공개고발로 인해서 무차별한 융단포격을 당한 것이다. 이 야무진 딸은 자기 엄마의 죄상을 낱낱이 공개하고, 장렬한 의지로 처벌을 요구했다. 이 딸이 말하길, 파출소장인 자기 엄마는 위선에 가득 찬 바람둥이이며, 가정을 팽개친 여자이며,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는 남편을 버린 배신자이며, 직장생활 한답시고 시어머니를 종처럼 부려먹는 교만한 인간이다. '피눈물을 쏟'으면서 '정의로운 여론의 뜨거운 심판을 기다린다'는 이 딸은 자신의 외가이자 엄마의 친정집 전화번호까지 공개할 정도로 잔인하기도 했다.

이 사건을 보는 이들은 만감이 교차하는 심정들이다. 패륜이라는 이름으로 쏟아지는 여성공직자를 향한 모진 돌팔매를 보는 것도 한숨이 나오는 일이거니와, 엄마를 마지막까지 드러내서 후벼파는 딸의 '장렬한 의지'가 놀랍기만 한 것이다. 더구나, 신세대인 대학교 2학년생 딸의 고발장에서 확인되는 철두철미한 가부장제의 고정관념이란 기가 막힐 정도였다. 그 고정관념 아래서 여자가 한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진실은 실종돼 버렸다.

김경위와 그의 친구가 말하는 엄마의 삶은 임신으로 인한 강제결혼, 의처증과 폭행, 외도, 경제적 착취로 점철된 불행한 결혼생활이었건만, 딸의 눈에는 이기적인 엄마는 가해자로 그려지고 있을 뿐이다. 대학교 2학년이나 되는 딸이 엄마의 진실을 이렇게도 모르고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의문이었다. 친딸조차도 엄마를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김경위는 얼마나 불쌍하고 외로운 여자인가? 딸이 가부장제의 화신이 되어서 김경위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모습을 21세기 이 시간에 보아야 한다는 건 정말 괴로운 일이다.

한가지, 이 사건에서 놓치면 안되는 게 김경위의 결혼 동기이다. 김경위의 남편은 김경위의 여고 교사였단다. 이들의 연애 과정은 강제된 성관계와 임신, 그를 정당화하기 위한 결혼으로 이어졌다. 세상물정 모르는 스무살 난 김경위는 임신이 된 걸 알고는 8살 연상의 아들 딸린 이혼남과 결혼을 하는 것이다. 부모님의 반대가 컸지만, 그 길 밖에는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김경위가 이 때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뒤늦은 생각을 해본다. 여자들은 이런 결정을 많이 해왔다. 임신이 되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자기 인생을 너무나도 쉽게 포기해왔다. 그러나 원치 않는 결혼이란 항상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진리를 김경위의 결혼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이 원고를 쓰면서 나는 정말 한 숨을 쉬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우리는 19세기 원판을 놓고 왈가왈부 해야 하는가 말이다. 더구나, 21세기의 주역으로 자라나야 할 우리의 신세대 딸들이 가부장제의 화신이 되어 엄마를 죽이고 있는 모습이라니.... 뭐 그리 많은 말이 필요하랴, 뭐 그리 심각할 일이 있으랴. 엄마도 사람이다! 사람 좀 살자! 나눔터

지도층 성추행 사건을 짚어본다.

조중신 (본 상담소 피해자 보호시설 열림터 시설장)

총선의 열기가 수그러든 지난 6월, 우리 사회는 또 한차례 태풍의 회오리에 휘말렸다. 녹색연합 대표이자 총선연대의 핵심 맴버였던 장원씨의 성추행사건,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간부의 성추행사건, 이양호 전 국방부장관과 로비스트 린다 김의 부적절한 관계(?) 사건, 서대문 민선 구청장의 성추문 사건.... 줄줄이 터져 나오는 사회지도층 인사의 추문은 혼란, 우려, 개탄, 그리고 언론의 선정적 보도 등으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충격을 주었다.

본 상담소에는 기자들의 질문공세와 인터뷰 요청이 밀려들었고 신문, 방송마다 특집기사들이 실렸다. 기자들의 질문요지는 거의 한결같았다. 요즘 들어와서 사회지도층 인사의 성폭력 사건이 얼마나 더 늘었느냐? 왜 요즘 많아졌다고 보는가? 구체적인 사례를 말해달라. 피해자를 직접 연결해 줄 수 있느냐? 등이었다. 물론 상담소에서는 피해자의 동의없이 사례를 공개할 수 없으며 수사, 보도과정에서 피해자가 또다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 지원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면 사회지도층 인사란 어느 부류를 지칭하는 것인가?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알려진, 얼마만큼의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어느 분야의 어떤 직급 이상의 사람을 말하는가? 이에 대한 규정도 필요하다. 일단 상담소에서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선을 우선으로 하고, 명예와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중시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 윤리, 도덕적으로 타의 귀감이 되기를 기대받고 있는 공직자, 성직자, 교직자, 언론인, 사회운동가 등을 지도층이라고 보았다.

1991년 본 상담소가 여성운동단체로서 성폭력전문상담활동을 시작한 이래 우리는 줄곧 성폭력이 성관계가 아니라 권력관계이며, 강자가 약자에게 행하는 인권침해라는 것과 여성을 인격으로서가 아니라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거부에도 불구하고, 완력, 폭력, 권력, 금력, 위력을 이용하여 성적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라는 것을 주장해왔다.

성폭력피해사건은 권력관계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다. 마땅히 양육과 보호를 해주어야 할 어른들에 의해서, 포용과 지도를 해주어야 할 상사에 의해서, 신뢰할 만한 자인 성직자, 교육자에 의해서, 전문성에 생명을 맡기는 의료진에 의해서 어리고, 힘없고, 취약한 위치의 어린이와 여성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의뢰된 피해사례 중 사회지도층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에 의한 성폭력은 상당히 많다. 단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사회적 권위 때문에 더욱 은밀하게 자행되고, 교묘하게 무마되고 은폐되어 왔을 뿐이다. 그들은 평소에 신뢰와 존경을 받는 신분을 이용하여 피해임을 인지하지 못하게 현혹시키거나 위장하였고, 폭행과 완력보다는 유인과 위계를 사용하였으며, 거부와 저항을 감히 할 수 없는 위력과 압박감 속에 행하여 범죄의 증거를 남겨놓지 않았으며, 문제제기를 했을 경우 금력과 권력으로 자신을 변호하고, 오히려 문제제기를 한 피해자들을 무고, 명예훼손으로 제소하고, 불이익을 주고 매도함으로써 피해자를 더욱 곤란하게 만들어 왔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피해자는 제재가 두려워 피해를 당해도 고소나 신고를 하기가 어렵고 사건은 대체로 묻혀지는 경우가 많았다. 장원씨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 여학생이 평소 존경하던 사람에게 가지는 권위와 권력에 위축되어 신고하지 않았다면 드러나기 어려운 사건이었다.

요즘 불거져 나오는 일련의 사건들은 사회지도층 인사의 이런 파렴치 행위들이 증가했다기 보다는 피해자이면서도 오히려 지탄받고 비난받고 곤란해지기 때문에 드러내지 못하고 숨죽이고 있던 피해자들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이제는 말하자"고 나서고 있기 때문에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지만 어쩌면 이제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하며, 이런 일들이 극명하게 드러나 공론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해야한다고 본다.

본 상담소는 이 계기를 통하여 사회지도층 인사의 성폭력 피해사례를 집중 신고받고자 6월 15일부터 2주간을 특별신고기간을 마련하였다. 2주 동안 20여 건의 피해사례가 의뢰되었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지원이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2000년 상반기 상담현황에 나타난 지도층에 의한 피해도 같이 살펴보았다.

전체 106건의 사례에서 가해자의 직업은 공직자(고위공무원, 구청장, 검찰청직원, 경찰, 군인, 시의원, 동장, 국가단체장), 문인(시인, 소설가), 언론인(방송국 국장, PD, 연예인), 성직자(목사, 스님, 신부, 사이비교주), 교육자(대학교수, 대학강사, 교장, 교감, 교사, 연구원, 학원장, 유치원장), 시민운동가(시민단체, 노동단체) 전문직(변호사, 의사, 변리사, 임상심리상담가), 대기업 간부나 사장, 회장 등으로 나타났다.

■ 표1 가해자의 직업

직업	공직자	문인	언론인	성직자	교육자	시민운동가	전문직	기업인
106건	8	2	3	15	28	4	8	38
%	7.5	1.8	2.8	14.2	26.5	3.8	7.5	35.9

■ 표2 피해유형

유형	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성희롱	기타(간통, 혼인빙자, 원조교제)
건수	27	4	41	31	3
%	25.5	3.8	38.7	29.2	2.8

■ 표3 피해자의 직업

직업	학생	주부	회사원	공무원	전문직	교육자	서비스직	기타	미상
106건	21	5	43	1	8	4	1	8	15
%	19.8	4.7	40.5	0.9	7.6	3.8	0.9	7.6	14.2

■ 표4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관계	직장상사 / 부하, 부하의 부인	교육자 / 제자	성직자 / 신도	전문직 / 고객	고객/ 서비스직	선배 / 후배
106건	53	28	15	8	1	1
%	50.0	26.4	14.2	7.6	0.9	0.9

■ 표5 피해자의 유형

피해자	성인 92(86.8)				청소년	어린이	미상
		30대		50대			
106건	69	16	6	1	9	1	4
%	65.1	15.1	5.7	0.9	8.5	0.9	3.8

■ 표6 다른 피해자 유뮤(상습성 유무)

다른 피해자	유	무	미상
106건	37	3	66
%	34.9	2.8	62.3

이어서 7월부터 여성주간을 기념하여 '지도층 성추행 파문이 우리에게 남긴 것'이라는 주제로 사이버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토론회에서는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 여전히 잘못된 성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후의 허탈감과 잘못된 성문화를 어떻게 전환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주를 이루었다. 잘못된 성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지금 나부터 시작하자'는 실천적인 의견도 많았다. 특히 또하나의문화 사무처장 이정주씨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하나"라는 제목의 글에서 1989년 캐나다의 한 대학에서 여학생 14명이 여성혐오자의 반자동소총에 의해 피살된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하얀 리본 운동'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이 운동은 1991년 추모회에 맞추어 몇 남성들이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반대한다는 심볼로 하얀 리본을 착용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이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저지르지도 않고 묵과하지도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해 침묵하지도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주위에서 성차별적 농담이나 성희롱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맞서 항의하고 제재할 것을 약속하는 이 운동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지도층 성추행 뿐 아니라 여성에 대한 어떠한 폭력에도 맞서 항의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편 일부의 의견으로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남자를 모두 성추행범으로 보는 것 같은 분위기와 일부의 일을 전체 남자의 일로 확대하는 것 같다는 불만도 있었으며 여전히 여성 유발론을 주장하는 의견도 보였다.

상담소에서는 그간 〈대학 내 성폭력사건에 대한 공청회〉, 〈교육자에 의한 성폭력〉, 〈교회내 성폭력문제에 대한 공청회〉,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법제정 운동〉 등을 펼치면서 "신뢰할 만한 자"에 의해 자행되는 성폭력에 대하여 친족성폭력에서와 마찬가지로 중하게 처벌하여야 한다는 것을 주장해 왔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층의 성폭력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인 상담과 법적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사회적인 여론 환기도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나눔터

성평등교육문화센터 ☎ 576-7128

'훌쩍 크는 여름' 캠프를 다녀온 후

-2000년 '육아시설 아동을 위한 건강한 환경조성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7월 20일, 흐리고 비가 많이 왔던 전날과는 달리 하늘은 맑고 해가 빛났다. 이날은 서울 시내 모 육아시설[1]의 중·고등학생 34명과 함께 2박 3일 캠프를 떠나기로 되어 있는 날이었다. 이 캠프는 2000년 한해 동안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는 '육아시설 아동을 위한 건강한 환경조성 프로젝트: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프로그램'의 상반기 성교육을 마무리하는 행사였다.[2]

아이들은 상반기에 성교육을 진행하였던 시설 2곳 중 한 곳의 아이들로, 3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8주 동안 매주 만나다 그 이후로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캠프 가기 전부터 다시 만나는 일이 은근히 기다려지기도 하였다. 긴 기다림 후에 만나는 아이들의 모습은 방학을 시작해서인지 우선 머리모양과 색깔이 많이 달라져 있었다. 저마다 개성을 살린 머리에 한껏 멋을 부린 옷차림들이 캠프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버스 맨 뒷자석을 맡으려고 시설에서 버스가 대기해 있는 곳까지 만만치 않은 거리를 쉬지 않고 달려온 고 3 여학생부터 멀리서부터 알아보고 "성교육 선생님이다"를 외치는 중 1 꼬마들까지 모두 신나고 즐거운 얼굴들이었다.

캠프 장소인 경남 함양군 마천면에 위치해있는 지리산 산장까지는 서울에서 대여섯 시간이 걸리는 먼 거리였지만, 관광버스에 설치되어 있는 노래방 기기를 사용하여 최신곡을 섭렵하는 자칭 '가수'들의 노래를 듣다보니 어느새 지리산. 짙은 녹음과 맑은 계곡 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저녁을 먹고 나서 맞이하는 이번 캠프의 첫 번째 프로그램은 '심리극'. 자신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하는 시설 아이들의 솔직한 마음들을 이끌어 내보자는 의도에서 전문강사를 모시고 심리극을 진행하였다. 신나게 게임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연극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중학교 1학년의 남자아이 한 명이 주인공으로 발탁이 되었다. 시설에서 8회에 걸친 성교육을 진행하는 동안 유난히 산만하고 다른 아이들을 많이 괴롭히는 등 교사들 사이에서 말썽꾸러기로 소문이 났던 아이였다. 그 아이가 난파선에서 죽음에 이르게 되어 염라대왕 앞에서 천당, 지옥, 환생을 결정하는 재판을 받게 되는 주인공이 된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검사는 주인공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였고, 변호사는 주인공에 대한 공감을 통해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였다. 검사와 변호사 각각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주인공 자신을 비롯하여 모두들 그 아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고, 미처 몰랐던 많은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주인공은 자신의 결점까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밝히게 되는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결국 자신의 긍정적인 면을 큰 소리로 외치면서 다른 사람들의 공감 어린 박수를 받는 얻기 힘든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 심리극이 어떤 식으로 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교사들은 남은 캠프 기간 내내 이 아이가 예전보다 훨씬 어른스러워지고 점잖아진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보였다.

이날 밤, 모든 행사가 끝난 후 여학생들은 몇몇 여자 교사들과 함께 어두운 계곡 길을 전등으로 밝혀 야간 목욕에 나

1) 육아시설이란 만 3세부터 18세까지의 아이들이 집 대신에 거주하는 공간으로 예전에 일명 '고아원'으로 불렸던 곳이다. 그러나 요즘의 육아시설에는 부모가 없는 아이들보다는 IMF와 같은 경제위기나 부모의 이혼 등으로 부모가 키울 수 없어서 맡기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그래서 육아시설의 아이들은 '고아원'이라는 말을 가장 싫어한다고 하였다.

2) 이 프로젝트는 1월부터 3월사이 각 대상별(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4월부터 6월 사이에는 육아시설 두 곳(영락보린원, 효행원)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은 각각 4회, 초등학교 고학년은 6회,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8회의 성교육이 진행되었다.

섰다. 달빛 아래 15명 남짓한 여자들이 한꺼번에 속옷차림으로 샤워를 하는 모습은 다시 보기 힘든 광경이었다. 이 시간은 유난히 친해지기 힘들었던 여자 아이들이 교사들과 작은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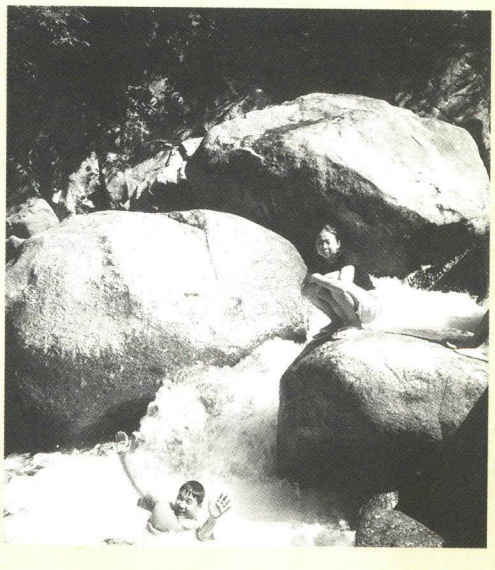
이튿날 아침, 오전 프로그램은 '그들만의 세상 속으로'라는 제목으로 모둠별로 아이들과 성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이었다. 그런데 교사들의 예상과는 달리 오전부터 날씨는 너무 무더웠고, 전날부터 물놀이를 갈망하던 아이들을 달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가 많이 힘이 들었다. 그래서 결국은 모둠 별로 자유롭게 물놀이와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물놀이에만 정신이 팔려 교사가 전혀 이야기를 할 수 없었던 아이들도 일부 있었지만, 쑥스러워 하면서도 모둠 교사가 있는 곳으로 일부러 다가와 하기 어려웠던 질문들을 털어놓는 아이들도 많았다. 이전에 있었던 8회의 성교육 시간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이었다. 낯선 사람들에게 여간해서는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시설 아이들이지만, 여러 차례의 성교육을 통해 어느 정도 신뢰감을 형성하게 되었고, 새소리, 물소리와 함께 하는 자연 그 자체가 아이들로 하여금 마음을 열게 하는 촉진제로 작용해 준 듯 했다. 성(性) 자체에 국한되지 않고 교사들이 먼저 물어보기가 힘들었던 부모님이나 가족이야기부터 이성친구 문제, 진로문제까지 아이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인생문제들을 상담해 왔고, 교사들은 이 아이들의 새로운 면을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오후에는 천혜의 자연풀장에서 신나는 물놀이를 하였고, 저녁식사 후에는 '성지식 골든벨 게임'을 시작하였다. 성지식과 성폭력, 일반 상식 등으로 구성된 퀴즈 문제를 풀었는데,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 때문이었는지 아이들은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였다. 8회의 성교육을 통해 이미 다 배운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었음에도 여전히 틀린 답을 선택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교사들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기도 했지만, O·X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더듬어 열심히 기억해 내려는 모습도 보여 이전의 교육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끼게 하였다.

떠나는 날 아침, 마지막 프로그램은 '다시 시작하는 오늘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모둠별로 전체 캠프를 정리하고, 롤링 페이퍼 등을 통해 서로의 장점을 이야기해 주는 시간을 가졌다. 이 시간에 전날 물놀이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던 모둠도 있었고, 평소에 친구들에게 하지 못했던 쑥스러운 이야기들을 적어 주는 기회가 되어 좋았다는 모둠도 있었다.

이번 성교육 캠프는 처음 기획 단계에서부터 조금은 느슨한 프로그램으로 교사가 아이들에게 강의를 하는 식이 아니라 편안하게 다가가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는 캠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다.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었지만, 시설 내라는 막힌 공간에서 보았던 것과는 달리 훨씬 솔직하고, 열린 아이들의 마음 속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수확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것은, 부모로부터 혹은 다른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시설 아동들의 마음을 먼저 어루만져주는 일이라는 것이었다. 또한 그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진정한 성교육이야말로 인생교육이며, 몇 회의 강의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과 일시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외부인이 가서 하는 교육보다는 시설 내 선생님들을 훈련시켜 일상적인 성교육과 상담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하반기 사업은 2000년 상반기에 진행되었던 시설 2곳에서의 성교육과 캠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5개 지역에서의 성교육 웍샵으로 이어질 계획이다. 육아시설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이 성교육 웍샵에 많은 시설 선생님들이 참여해서 우리가 가졌던 이 소중한 경험들을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나눔터



장애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의 한가운데에서

유은주(본 상담소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 연구원)

장애인 대상의 성폭력 사건이 불거져 나오면서 장애인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늘고 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7년간 지속적으로 같은 마을 주민에게 성폭력을 당해 여러 차례의 임신과 낙태를 경험하고 출산까지 하게 된 강릉의 K씨의 사건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문제의 특성과 심각성을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 동안 성교육 대상으로 고려되지 못했던 장애인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이 진지하게 고민되고 있는 것이다. 여러 단체에서 장애인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것도 이런 문제의식의 확산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상담소도 장애인 성폭력 예방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경도 정신지체 장애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사실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문제는 종종 사회에 알려져 왔지만 대부분 일시적인 사회적 관심을 받았을 뿐 중대한 문제로 지속적으로 다뤄지지 못했다. 장애인의 성적 권리는 장애라는 조건에 밀려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애인의 성적 권리는 직업을 가질 권리와 같은 생존권적인 문제와 함께 다뤄야 할 시급한 문제이다. 이는 적극적으로 장애인의 성폭력피해를 막는 출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을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과 성교육, 그리고 성폭력피해에 대처하는 체계를 만드는 작업은 넓은 범위에서 장애인의 성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껏 장애인의 성에 대해 가져온 편견들, 예를 들어 장애인들은 무성적인 존재일 것이라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성적일 것이라는 생각들은 장애인을 위한 성교육의 필요성을 회의하게 했다. 그러나 비장애인과 달리 성폭력으로부터 스스로 몸을 보호하고 방어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이들에게 정확히 성적 피해가 무엇인지 혹은 성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공개적으로 말하고 교육하는 것은 성적피해에 대처하는 자원을 제공하는 출발이 된다.

따라서 여러 장애의 조건에 맞는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하지만 이것이 장애를 겪고 있는 당사자를 훈련하고 지원하는 문제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장애인들이 자신의 몸에 가해지는 폭력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처방법을 지도하는 예방교육과 함께 주변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하다. 이는 보살피는 장애인이 언제라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찾아내는 훈련과 노력을 포함한 것이다. 더불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이에 대처하는 전문적인 의료적 · 법적 지원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장애인 대상의 성폭력 사건을 살펴보면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피해 양상이나 대처방안이 매우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는 데, 특히 정신지체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정신지체 여성의 경우 다른 장애에 처한 여성과는 달리 피해의 개념에 대해서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피해를 주변에 알리거나 도움을 청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린다고 해도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춰진 피해의 양상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폭력 상담소에 접수된 사건 통계에서 밝혀주고 있듯이 정신지체 장애인들은 자신이 잘 알고 있거나 더 나아가 의존하고 있는 주변인에 의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평소 이들을 보살펴주는 가족, 친지, 거주 시설 종사자, 개인 보조원 등 주변인 대부분이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피해자의 주변에 가깝게 있으면서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가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피해의 수위는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K씨가 지속적인 성폭력 피해를 입었던 것도 이렇게 그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주변인의 가해가 되풀이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어렵게 문제 사실이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법적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일처리 방식으로 이중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견해가 엇갈릴 경우 일관적이고 논리적인 진술이 가능한 비장애인에게 유리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무혐의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K씨의 사건이 초기에 얼마간의 금전적 보상으로 합의되는 방식으로 종결된 것도 장애인 성폭력 문제에 대한 경찰 측의 이해가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이들을 돕는 특수한 지원체계가 전무했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성폭력 문제는 장애인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교육이라는 인지적 능력에 호소하는 방법론으로 풀어가기에 어려운 점이 많다. 따라서 주변인들이 피해 가능성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과 관찰을 통해 조기에 사건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장애인 성폭력 예방교육과 성교육도 이런 관심과 지원이라는 전체적인 하나의 연결고리 속에서 이루어질 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장애인 성폭력 문제는 비단 피해를 입은 장애인 개인과 가족, 주변인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함부로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는 권력을 지닌 위치에 있는 자라면 누구라도 자행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인의 몸과 인권에 대한 존중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널리 인식될 수 있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는 노력이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눔터

토론회-"스포츠에서의 성차별적 관행 개선을 위한"

정유석(본상담소 前 인권홍보부장)

"쫄쫄이 유니폼 차림으로 뛰는 여자 선수들의 모습은 남자 농구에선 볼 수 없는 눈요깃감. 특히 풍만한 몸매의 용병선수들은 더욱 볼만할 것"

- 98년 여자농구에 이른바 '쫄쫄이 유니폼'이 도입된 후 한국여자농구연맹의 한 관계자가 스포츠지와의 인터뷰에서 한 얘기이다. 이와 같은 발언은 여자스포츠와 여자선수들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 수준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성역할 고정화, 성의 상품화의 문제는 일반사회는 물론 스포츠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으로 본 상담소는 지난 제 5회 여성주간을 기해 스포츠에서의 성차별적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문제제기는 유니폼규제를 통해 본 성의 상품화, 매체에서 재현되는 여자스포츠의 이미지, 크게 두 축으로 이루어졌고 사이버 토론회와 오프라인 토론회 형식을 통해 각각 이루어졌다.

〈사이버 토론회-여자선수 밀착유니폼에 대한 동상이몽 : 2000.7.1~7.7〉

"선수들과 구단측의 관계는 노동자와 사용자라 할 수 있을 것. 사용자측에서 노동자의 동의없이 쫄쫄이 유니폼을 입도록 강행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패널-한국노총 여성국)

"스포츠를 좋아하는 남잔데요... 유니폼이 바뀐후로 선수들 몸매보러 가는게 아니냐는 주변 사람들 시선때문에 경기를 보러가는게 망설여져요."(jclub)

"세계적 수준의 한국 여자농구를 무시하는 처사에 분노를 느낀다..."(dapopo)

"선수들이 입는 쫄쫄이는 면인가여? 땀 흡수가 안되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닌데... 비활동적인 거 같아여.."(ypsarang)

토론 참여자의 대부분은 밀착유니폼이 여자농구연맹의 설명과는 달리 경기능률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여자선수들에게 억압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고 여자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 투자를 할 것을 요구. 관련문제에 대한 피켓팅을 제안하고 동의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들을 보였다.

〈오프라인 토론회-스포츠에서의 성차별적 관행개선을 위한 : 2000.7.13〉

유니폼 규제뿐만 아니라 스포츠에서의 성차별적 관행, 특히 미디어에서의 차별적 문제를 진단, 대안을 모색해보는 자리로 '미디어 스포츠와 여성', '여성과 스포츠'에 대한 발제와 토론으로 이루어졌다.

미디어 스포츠에 대한 페미니즘적 접근을 통해 신문과 TV에서의 성차별적 보도경향을 짚은 김양례(이화여대 체육학)님은 여성스포츠에 대한 왜곡과 사회문화적 편견에서 비롯된 여성스포츠에 대한 차별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맞물려 정당화되면서 미디어 스포츠의 차별적 보도관행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보도경향이 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고리를 설명하였다.

"여성다움에 대한 끊임없는 사회적 요구와 운동선수로서의 성공이 모순되는 속에서 여자운동선수로서의 성공적 경험은 그 자신뿐 아니라 그것을 지켜본 여성들에게도 새로운 경험이 될 것"-문은미(여성문화이론연구소)님은 여학생들에게 남자들이 원하는 여성의 모습 이외에 강인하고 의지적인 여성상을 제시하는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여자스포츠에서 그 모델을 찾아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얘기했다.

취재과정에서 느낀 한국스포츠에서의 차별적 문제를 짚은 조이여울(여성신문 기자)님은 여성스포츠, 여성스포츠인에 대한 대우가 미약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여성이 스포츠에서 갖는 입지와 여성스포츠 발전을 위해 여성 행정가와 지도자를 키워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스포츠계에 만연한 성차별 행정, 여자선수에 대한 부당 대우, 인권침해에 대해 여성단체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본 상담소는 위의 토론회를 통해 여자선수의 전문인으로서의 이미지 구축과 여자경기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 여성의 생활체육권 차원에서 여성의 스포츠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의 중요성을 절감했고 많은 네티즌과 전문가들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이 좀더 큰 반향을 갖고 경기협회의 차별적 규정 변화와 보도관행의 변화, 결국에는 건강한 여자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한 단초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후속작업이 필요하다 하겠다. 나눔터

TV만화 영화 속으로

김민경(본 상담소 21세기여성 · 미디어운동센터 모니터팀)

몇 달 전, 남녀에 따라 사회적 역할을 구분 짓는 시대에 뒤쳐진 교과서 그림이 달라진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긴... 동성애를 비정상적으로 취급하는 가정 교과서의 글귀까지 사라진다하니... 그래서... 그럼 그렇지, 언제까지 의사 옷 입은 남자이고 간호사 모자 쓴 여자인가, 요즘 부모들이 어떻고 요즘 애들이 어떤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일인가.

만화에는 온통 그대로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이제 고리타분한 교과서에서도 뵈지 않을 앞치마 두른 엄마와 넥타이 멘 아빠가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 그래야만 한다는 듯 잘도 등장하고 있었다.

이번에 주로 살펴본 만화영화는 KBS의 〈마이트가인, 명탐정 코난, 태권왕 강태풍, 세일러 문〉 등이다.

위의 네 만화의 비슷한 점은 모두 '선악구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재미있는 것은 주인공이 남자일 경우(마이트가인, 태권왕 강태풍, 코난), 명석하고 합리적인 판단 하에 상황을 이끌어 가는 반면 여자일 경우(세일러 문), 주변의 충고와 도움을 받아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배역과 중요도에 있어서 성별간의 차이도 문제이지만 같은 배역 안에서도 성별에 따라 나타나는 성격차이(?) 역시 큰 문제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위에서처럼 대게 우리의 선한 주인공들은 어떻던가. 어디 그들이 하던 행동에 '무조건', '불쌍하니까',' 마음이 끌려서' 와 같은 이유가 있던가. 그들은 대부분 '불의에 맞서', '세상을 구하기 위해',' 대의를 위해' 또는 '분명한 목적을 위해' 행동한다. 그리고 그 행동을 옮기는 과정 역시 대단히 냉철하고 명확한 분석 하에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의 세라는? '지구를 구한다는' 엄청난 대의가 여자에게 주어지는 게 웬일인가, 싶더니 어쩐지... 이번 악마와의 싸움이 끝나면 -여느 남자주인공처럼 비장한 각오가 아니라- 남자친구와 꼭 데이트부터 하리라 마음먹고, 싸울 때는 영 불편할 수영복 같은 옷을 입더니, 남자친구모습을 한 악마를 뻔히 알면서도 '혹시 몰라' 하며 구하러 뛰어가다 나자빠지고, 자꾸 울기만 한다. 그러다 결국은 악에 받혀(?) 싸우면 어찌어찌하여 악마를 무찌르게 되고 세라는 울음을 멈춘다.

더 재미있는 것은 주제가 속에서도 여자는 '사랑을 통해' 세상을 감싸안고 남자는 '정의를 위해' 세상을 구한다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악마들은 또 어떤가. 마이트가인의 여자 악마는 여느 악마들이 모니터를 주시하며 상대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을 동안 소파에 드러누워 TV를 보고 있고 여느 악마들이 지구정복의 꿈을 외칠 때 공룡고기가 먹고 싶다며 숲에 쳐들어갈 계획을 세운다. 분별력 없기는 마이트 가인의 여자악마나 세일러 문의 세라나 매한가지. 주변 인물들도 모두 비슷한 공식을 따르고 있다. 같은 비서인데도 남자비서는 언제나 성실한 충고와 냉철한 조언을 아끼지 않지만 여자비서는 주인공의 의견에 동의하거나 차를 나를뿐이다(마이트 가인, 명탐정 코난). 주인공 친구로 설정된 인물들도 다를 바 없다.

여기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우스운 예가 있다. 바로 남장여자와 여장남자. 남장여자는 위의 마이트가인에 나오는 악녀의 비서로 '여자치곤' 합리적이고, 여장남자는 또 다른 악마로 '남자로는 보기 드물게' 야비하고 치사하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작가는 무언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며 냉철한 분위기를 풍기려면 여자도 '남자처럼' 해야 하고, 감정적이고 단순하고 간사한 분위기를 내려면 남자도 '여자처럼' 해야 그 맛이 제대로 난다는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남장여자, 여장남자는 아니더라도 소위 말하는 남자 같은 여자, 여자 같은 남자는 만화 속에서도 제대로 된 대접을 받기 힘들다. '태권왕 강태풍'에 나오는 짧은 머리의 여자아이는 연약한 긴 머리의 지혜를 그토록 위하는 자상하고 착한 태풍이에게 느닷없이 발차기를 당하고 걸핏하면 놀림을 받는다. -극의 초반부를 본 거라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으나-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여자애가 너무 당차고 활발하면 남자한테 사랑을 못 받아요."

이처럼 여성성과 남성성을 구분 짓고, 구분 짓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월성과 열등성으로 다시 매듭짓는 모습은 만화영화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다. 아니, 더했다. 만화는 인물묘사나 상황묘사가 복잡하지 않은 그 '단순성'으로 인해 '정형화'도 쉬운 법이므로 또한 그만큼 위험성도 증가한다.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의 우리보다 훨씬 다채로운 삶을 살아갈 아이들인데, 아직도 왜곡된 구닥다리를 디밀며 '이만하면 재밌지?'를 연발하고 있는 한심한 만화프로그램.

여자아이가 '원대한 꿈'을 꾸든, 남자아이가 '예쁜 소망'을 이야기하든 우리가 할 일은 이야기를 들어주고 많은 모델을 보여주는 일, 대중매체, 그 중에서도 만화영화에서 가장 하기 쉬운 일이다.

나눔터

달떠들떠? 여대생들이 모여 만든 여성문화기획 불턱이 마련한 월경페스티발. 달이 뜨는 것이 들뜨는 일인 것처럼, 월경 경험이 들뜨는 일일 수 있고 자신이 여성이라는 사실이 즐거울 수 있는 세상을 향한 희망을 담은 제목이라 할 수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성의 월경은 여성에 관한 오염신화-여성은 불결하여 신성한 영역(성소)이나 물건(성물)에는 접근할 수 없다는 그릇된 관념 -를 강화시키는 기제로 기능하여 왔다.

여성의 일상적 경험으로써의 측면은 간과되고 "임신의 실패"로써의 현상만으로 다루어져 여성의 몸을 그 자체로 인정하기보다 '임신, 출산의 도구'로서 인식시키는 데에 간접적인 기여를 해왔다.

- 월경페스티발 홈페이지에서http://my.netian.com/~bultuck

난 학부 4년, 대학원 4년 모두 8년 동안 대학을 다녔지만, 그 무수한 대동제나 문화행사 등을 온전하게 즐겨본 기억이 별로 없다. 학부 때는 주로 행사를 준비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대학원 때는 세미나나 수업준비 혹은 과외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올해 월경 페스티발을 이화여대에서 한다는 포스터를 보고 내심 쾌재를 불렀다. 얼마 전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돈은 없고 시간만 많은 초보 백수 생활을 하고 있던 나에게 이번 월경 페스티발은 8년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였던 것이다. 굳이 다른 곳으로 갈 필요도 없고 게다가 '공짜'라니.....그리고 여성주의적인 문화 행사니까 다른 행사처럼 트집잡을 일도 없을테고.....토요일날 그냥 마음을 비우고 실컷 즐겨보자는 굳은 다짐을 한 채 행사장으로 향했다.

한층 선선해진 저녁 공기 속에서 느긋하게 준비해간 음식을 먹으며 행사가 시작하기를 기다렸다. 행사장 곳곳에서 보이는 도우미들의 옷차림이 왜 저럴까하는 의아심을 잠깐 가지기도 했지만, 월경 페스티발의 처음을 장식했던 'ACTION'의 춤 공연은 아무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멋졌다. 7시를 조금 넘어서 시작한 행사가 마무리 된 시간은 밤 10시가 넘어서였는데,

'달떠 들떠' -월경페스티발을 다녀와서-

허나윤 (전 나눔이, 이대 여성학 석사)

난 그 3시간 동안 주변 사람들과 웃고 떠들고, 온 몸이 땀에 젖을 정도로 노래에 몸을 흔들고 소리 지르고....아무튼 미련없이 놀았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 월경 페스티발이 무조건 좋았다는 건 아니다. 행사 진행이 매끄럽지 않았다는 점과 군데군데 내용과 형식이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을 주었던 점 등은 작년에도 나왔던 비판인 것 같다. 한 예로 초경을 경험한 소녀에 대한 연극은 월경 페스티발의 주제의식을 선명하게 담아야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해서인지 지나치게 계몽적이었다. 연극이 마치 설익은 과일 같았다면 다른 퍼포먼스는 너무 애매해서 맛있게 보이지만 익숙하지 않는 사람은 제대로 맛을 음미할 수 없는 퓨전음식 같았다고나 할까. 또한 행사가 지루할 것 같아서인지 주최측이 함께 기획하고 준비한 공연 사이사이에 끼어있었던 초대가수들의 공연은 보기에 아슬아슬했다. 지명도 있는 가수가 나오면 행사장의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지만, 최소한 '저 가수는 여기가 뭐하는 자리인지는 알고 나왔나?'라고 궁시렁거리게 되는 건 별로 유쾌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대학가에서 여성이나 페미니즘에 관련된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에서도 비슷한 불균형이 보이곤 한다. 물론 내용과 형식이 매끄럽게 통합되지 않더라도 여성주의적인 문화를 만들어가려는 새로운 시도들은 충분히 신선하고 의미가 있다. 그러나 '페미니즘'이라는 내용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때 단순히 유행하는 이벤트식이 아니라 좀더 여성주의적인 형식을 고민해야하지 않을까?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건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월경 페스티발을 즐겼다는 점이다. '페스티발'은 계급과 계층을 막론하고 공동체 성원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라는 친구의 말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부정적으로 인식되어왔던 '월경'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즐거워할 수 있었다면 이미 '월경 페스티발'은 성공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난 작년 제1회 월경 페스티발을 보지는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작년에 비해 올해가 더 낫다는 말을 하는 걸 보면 내년에는 좀더 즐거운 '월경 페스티발'을 기대해도 될 것 같다. 나눔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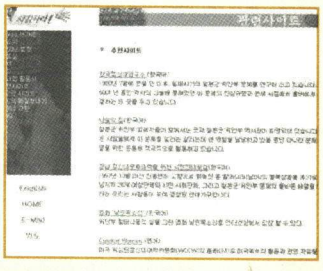
" 할머니에게 명예와 정의를: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사회운동 단체의 홈페이지는 단체와 대중간의 중요한 의사소통 창구가 된다. 그 중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홈페이지(http://witness.peacenet.or.kr)를 찾아가 봤다.

첫화면 머리에 한복을 입고 강렬한 표정으로 증언하고 있는 할머니가 뻗은 팔소매에는 '사죄하라!'는 메시지가 적혀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명예와 정의를' 이라고 쓰여 있는 2000년 법정 배너달기 안내가 떠있다.

홈페이지는 재정사업과 기금마련을 위해서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하단에는 2000년 법정의 재정마련을 위하여 북한산 송화가루 판매 광고가 자리잡고 있다.

관련 사이트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이트들이 링크되어 있다. 정신대 할머니들의 삶터 '나눔의 집', 정신대문제를 연구하는 기관, 외국의 운동단체, 정신대 문제에 대한 자료가 있는 자료센터 등 정신대문제 해결 운동의 역사가 링크되어 있는 사이트의 풍부함을 통해서 엿보인다.



관련 사이트 안에 항의 메일보내기는 아직 준비중인 항목이지만 조만간 위안부와 한국관련 망언자들의 이메일 주소를 안내할 예정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훌륭한 운동방법으로 기대해 본다.

인터넷에서 찾은 여성해방 공간

나눔터 기획팀

2000년 법정으로 들어가 보면 2000년 법정과 학생법정이라는 하위 항목이 나온다. 올해 12월에 일본 동경에서 열릴 예정인 2000년 법정은 일제 식민지 하의 전쟁에서 일어난 일본군 성노예제도에 대한 전쟁범죄의 책임을 묻고,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만든 형사법정으로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는 국제인권법정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청년의 힘으로!"라는 슬로건으로 한국의 대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고 있는 학생법정은 약 2년 여 동안 준비기간을 거쳐 20개 단위의 총여학생회, 여성자치 모임 등이 연극, 모의법정, 야외전시회, 문화프로그램을 4.28-29일 양일간 진행하였다. 이번 학생법정의 특징은 '위안부' 제도를 만든 일본의 전범자 개개인, 천황, 그리고 피해자들을 침묵하게 만들었던 가부장제를 처벌한 데 있다.

특히 여태껏 보지 못했던 여성주의 법정(3회기)은 새로운 여성질서를 통해 여성에 대한 폭력과 억압을 처벌하고 여성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학생법정을 클릭해 들어가 보면 이 학생법정의 시나리오를 받아볼 수 있다.

학생법정 시나리오 중에서

〈학생법정 3회기 여성법정 질서〉

이 법정은 여성체험의 공통성을 기반으로, 그 형식, 구성에 있어 여성주의 입장을 철저히 따르는 특별법정이다. 이 법정은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이 귀환한 이후, 자신의 성노예 경험으로 말미암아 순결 상실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평생을 살아가야 했던 삶 속에서, 가족관계와 결혼생활, 사회생활로부터 철저히 소외되어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던 사실을 밝혀내며, 그 원인을 규명하고, 처벌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 치유를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판에 앞서, 여성법정의 형식과 구성에 관해 알린다.

하나. 이 법정의 진술은 피해자, 가해자 양쪽에 있어 문서나 구두서술이 아닌 여타의 방법들을 쓸 수 있다.

하나. 이 법정에서는 증언이 가장 중요한 증거로 채택된다.

하나. 이 법정에서는 판사, 검사, 배심 등의 구분이 따로 있지 아니하고, '마눌'이라는 재판 진행자를 둔다. 마눌은 마누라의 극존칭으로서 여성주의적 입장의 상징적 존재이다. 또한 재판 후의 판결 이행에 책임 있게 피해자와 같이 행동한다

하나. 이 법정에서 다루고자 하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일종의 성폭력 사건이므로 성폭력의 피해자 중심 원칙을 충실히 지킨다.

하나. 죄의 형태와 죄질, 그리고 그에 따른 판결의 기준은 , 남성 중심성을 짙게 가지고 있는 현재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다.

하나. 형벌의 실행에는 법정에 참여했던 모든 이들이 함께 하여야 한다. 원고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치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께 도와야 한다.

"여성친화적인 사이버 공간 : 시스터 본드"

한국광고단체 협의회가 6월 발표한 2000년 상반기 통계에서 여성네티즌 비중은 46.5%에 달했다. 이는 99년 상반기 조사에서 20.1%, 하반기조사에서 29.3% 에 비해 약 2배가 증가한 비율로 놀라운 증가속도를 보인다.

그렇다면, 인터넷이 구연하는 가상공간에서 여성은 인터넷 세상의 절반인가?

안타깝게도 사이버 공간에서조차 여성들은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통신망이 개설된 초기부터 네트워크에서의 의사소통은 여성들에게는 그다지 자유롭지 않았으며, 거기에 온라인 성폭력, 사이버 스토킹은 사이버 공간에서 여성들의 어려움 가중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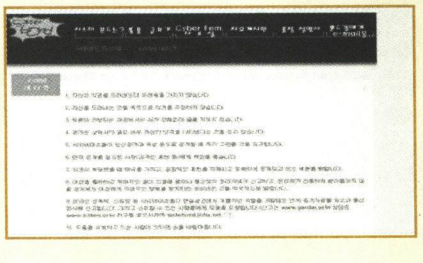
그 뿐인가? 여성과 관련한 웹사이트와 토론장의 거의 대부분은 무례한 사이버 마초들의 테러에 위축되어 게시판을 닫는 등 여성들에게 친화적인 공간조차 여성들이 마음놓고 사용할 수 없는 공간으로 변질되었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의 현실에 반기를 들고나선 시스터 본드(http://sisterbond.jinbo.net)는 그래서 더 주목을 끌고 있다.

시스터 본드는 "구태여 만든 이유"에서 사이버마초 테러를 근절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일 중 하나라는 생각에 합의하고 여성친화적인 사이버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첫 행동을 사이버 마초들을 근절하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밝히고 있다.

시스터본드는 또, 사이버 네티켓을 제정하여 알리고 있다.
사이버 네티켓에는 사이버 상에서의 서로 다른 의견을 인내심을 가지고 들을 줄 아는 성숙한 토론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네티즌들이 노력하고 지켜야 할 사항으로 채워져 있다.

시스터본드의 메뉴들은 네티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똥물글보기, cyber fem. 자료실, 품질 설명서가 그것인데, 특히 "똥물글보기" 는 인터넷의 여러 게시판에 떠 있는 "똥물"을 모아두었다. 시스터본드는 비이성적이고 폭력적인 글, 논쟁을 함께 할 능력이 안되거나, 그럴 마음이 없는 사람의 글들을 똥물로 선언하고, 현재 진행중인 게시판의 똥물들을 서로 퍼다 나르면서 똥물이 지나치게 많은 게시판이 있으면 다 같이 찾아가서 상황정리(?)를 함께 하자고 권유하고 있다.
"품질 설명서" 에서는 현재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여성 포털 사이트 및 여성사이트들의 품질을 평가하여 알리고 있다.



시스터본드와 같은 여성친화적 사이트에서의 성숙한 토론문화가 전체 인터넷 공간으로 전염되어 확산되길 기대해본다. 나눔터

아버지에게서 강간을 당한 청소녀기 내담자와의 상담과정 중에 내담자가 성씨를 바꾸고 싶다고 했다. 처음엔 성폭력 상담과 동떨어진 이야기인가 했는데, 아니었다. 성폭력 피해의 아픔을 드러내고 극복의 의지를 보여주는 단호한 한마디였던 것이다. 내담자는 "나를 보호해 주어야 할 아버지가 강간을 했는데 어떻게 그 아버지의 성씨를 따라 아버지의 호적 밑에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다. 맞는 말이었다. 당연한 말이었다. 너무나도 당연한 그 말에, 너무나도 절절한 그 마음에 해 줄 말이 없었다. 왜냐하면 방법이 없기 때문이었다. 우리 나라의 호적법에서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 내담자는 아직도 자신을 강간한 아버지의 성씨를 쓰고 있고 그 아버지의 호적 밑에 있다.

상담소에는 매달 500여건의 상담이 접수되고 있고 그 중 친족성폭력 피해는 15% 정도를 차지한다. 그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대다수의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도 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여성운동계에서는 호주제 폐지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다. 현재 원고인단 80여명이 구성되어 9월말에 위헌소송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를 9월 22일 발족할 것이다. 호주제 폐지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뿐만 아니라, 격렬한 찬반양론을 불러일으키는 무척이나 예민한 주제이다. 지난 7월 7일 법무부 주최로 열린 [호주제도 관련 토론회]에서도 폐지와 존속을 주장하는 양측의 열띤 토론이 있었다.

호주제를 넘어 평등한 관계로

장윤경 (본 상담소 사무국장)

호주제 존속을 주장하는 이들 중에는 호주제가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에 맞는 가족제도이므로 절대로 폐지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호주제는 우리 민족이 지켜온 문화유산의 일부가 아니다. 호주제는 일제가 식민통치를 편리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식해 놓은 식민시대의 잔재이다. 현재 우리의 호주제는 우리의 전통적 호주제도에 일제의 천황제적 가족국가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일제식 호주제도와 호주 상속제도를 이식하여 만든 제도이다.

그러나 호주제가 우리 사회에서 강화되어 오는 동안 호주제의 종주국인 중국은 이미 문화혁명 때 폐지하였고, 일본은 1948년 민법개정을 통해서 호주제도를 폐지했다. 결국 우리 나라는 호주제가 존재하는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인 것이다.

호주제에 기인한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와 가부장제는 성폭력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성폭력은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에게 가하는 폭력이다. 결국 가부장제는 여성과 어린이를 남성이나 어른에 비해 낮은 존재,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로 비하하기 때문에 여성과 어린이는 성폭력에 쉽게 노출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자신의 딸을 강간한 아버지의 항변이 "내 딸 내 맘대로 하는데 니가 무슨 상관이냐?" 이듯이 호주제는 성폭력과 무관할 수 없다. 결국 호주제의 존재는 우리 나라를 성폭력 발생률 세계 2위로 만들었다.

호주제는 관습에 대한 맹목적인 재생산을 통해 우리 사회를 존속시키는 큰 흐름으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그 흐

름은 남녀평등한 사회를 이루고 모든 이들의 인권이 지켜지는 흐름이 아닌 역사를 역행하고 인권을 역행하는 흐름이었다.

호주제에서의 호주는 가정의 주인이라는 뜻으로 왕권처럼 부계혈통만을 인정한다. 결국 자궁에 생명을 움튼 태아가 혈통을 이을 남자아이가 아니라 여자아이라면 세상의 빛을 보기도 전에 주검으로 세상에 나오게 하는 것이 호주제인 것이다.

그리고 호주 승계 순위는 아들, 손자, 미혼인 딸, 처, 어머니의 순으로 되어 있다. 그결과 호주가 죽었는데 아들이 없다면 생후 3개월 밖에 되지 않았더라도 손자가 그 집의 호주가 되는 것이다. 생활을 책임지고 이끌어 갈 어머니는 호주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이혼한 여성이 자녀를 키울 경우, 자녀는 아버지의 호적에 남아 있어야 하므로 주민등록상에는 어머니와 동거인으로 기록되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호주제는 4명중의 1명이 이혼을 하는 변화되고 있는 가족구조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호주제의 존속 입장에는 호주제가 폐지되면 가정의 질서가 무너진다고 불안해 하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호주제가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주었는가 하는데 의문이 생긴다. 오히려 봉건시대의 질서인 호주제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민주적인 사회질서와 가족관계를 만드는 것에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는 것이 가족해체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문제는 호주제도 자체보다 호주제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의 인식속에 깊이 박혀있는 망령이다. 호주제는 우리의 전통도 아니고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대변할 수 있는 제도도 아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역기능으로 성폭력 발생률 세계 2위, 성 감별을 통한 1년에 3만명에 달하는 여아낙태, 이혼후 자녀들이 당하는 불이익, 가족의 유대와 연대를 강조하여 발생하는 혈연주의, 족벌주의, 지역주의, 학연주의 등으로 이어지는 무수한 망령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호주제도는 출생 · 혼인 · 이혼 · 사망 등 개인의 신분 변동사항을 국가에 등록하여 민법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신분등록제도이다. 그러므로 이제 할 작업은 개인에게 필요한 범위내의 신분관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현재 여성계에서는 기본가족별 편제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호주를 없애고 결혼한 부부와 그 미혼자녀로 구성된 2대의 가족관계를 기록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미혼 성인자녀와 미혼부 · 모는 일가를 세울 수도 있다. 또한 이혼한 여성들도 독립적으로 새로운 신분증명서를 만들 수 있게 되며 자녀를 자신의 신분증명서에 올릴 수 있게 되는 등 변화되고 있는 가족형태를 담아낼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남녀평등한 사회를 이루고 모든이들의 인권이 지켜질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이제 더이상은 식민지의 유산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파괴되어 버린 가정의 질서유지라는 이름으로, 어린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을 강간한 아버지의 이름을 호주라는 권위로 망령처럼 달고 살아야 하는 고통은 주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호주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만 한다! 나눔터

캐나다 여성신문사 KINESIS와 함께 한 시간

허은주(한국외국어대학교 여학생위원회)

밴쿠버의 여성신문사에서 자원봉사를 한 것은 캐나다에서 어학연수를 하면서 얻은 특별한 경험이었다. 알고 지냈던 선생님에게 밴쿠버의 여성 단체 중 자원 봉사를 할만한 곳이 있는지를 물었을 때 추천해 준 곳, 그곳이 바로 KINESIS 라는 신문사였다. KINESIS는 1974년에 발행되기 시작한 여성 신문으로서 Vancouver Status of Women 이라는 여성 단체의 후원을 받아 1년에 10번 발행되는 신문이다. KINESIS의 사전적 의미는 자극에 대한 즉각적 반응 (the movement of an organism in response to a stimulus)이라는 뜻인데 왜 이것이 신문의 이름인지는 그곳 언니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았다. 신문사의 언니들이 KINESIS를 소개할 때 늘 '모든 성차별주의, 인종주의, 동성애 혐오, 유태인 혐오, 장애인 차별,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라고 썼던 것을 고려할 때 이런 모든 '더러운 것들' 에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신문의 이름을 'KINESIS' 라고 지었지 않나 한다.

여하튼 그 곳을 처음 방문했을 때의 긴장감을 잊을 수 없다. 신문사는 아주 허름해 보이는 건물 2층에 있었고 그 주변 동네는 차이나타운이 가까운, 비교적 우범지역이고 인디언들이나 소수 민족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사는 동네였다.

처음 문을 두드렸을 때 약간의 어색함을 없애주었던 한 중국계 캐나다인인 Agnes라는 언니는 내가 한국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는 책장 구석에 꽂혀있던 경실련에서 만든 영어 포스터를 보여주며 아는 단체냐고 묻기도 했다. 내가 거기서 일하던 기간 내내 가장 잘 이것저것 챙겨주고 이야기도 많이 했던 그 언니와 함께 지내면서 느꼈던 것은 '정말 따뜻한 사람이구나. 내가 여성주의자라는 것에 대해 저렇게 동질감을 느낄 수 있구나' 하는 놀라움이었다.

그 신문사는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내가 일하고 싶어했을 만한 곳이었다. 모두 여자들로 구성된 신문사 사람들은 정말 개성이 강하고 인종도 다양하며 터프한(?) 언니들이었다. 그 괄괄한 언니들이 내가 신문사에 갈 때마다 '한국에서는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무얼 하냐, 한국 국회의원에 여자는 얼마나 되냐, 한국에는 미혼모들의 지위가 어떠하냐?' 등등의 질문을 쏟아놓곤 했을 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하다. (언니들과 있었던 건 정말 즐거웠지만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것은 역시나 괴로운 일이었다.)

또한 신문사가 차이나 타운 같은 우범 지역과 가까이 있다보니 주위에 여성에 대한 폭력 사건이 꽤 일어나곤 했다. 한번은 신문사에 있는 팩스로 들어온 내용이 지금 차이나 타운에서 마약을 한 인디언 여성이 백인 경찰에 의해 심하게 구타당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때 언니들의 긴장한 표정과 밖으로 뛰어나가던 모습은 '역시 한국이나 여기나, 여성에게 천국은 없다' 는 생각과 더불어 언니들과 나의 공감대를 만들어 주었던 계기가 되었다.

내가 했던 일들은 주로 정기구독 독자에게 보내는 편지봉투를 붙이거나 전화로 광고를 얻는 것, 인쇄소에서 차로 신문 옮기기 등이었다. 기억나는 우스운 일이 있다면 신문사 언니들이 '은주는 아주 일을 열심히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다.' 라고 했을 때였다. 사실 별로 말을 잘 못 알아들어서 조용히 작업만 하고 있었는데 내가 원래 과묵한 사람인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많은 여성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일했는데 주로 주부들이었고 아이들을 신문사에 데려와서 함께 작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신문사의 재정에 대해 물었을 때 역시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이나 활동가들을 위한 지원은 아주 적다고 어려움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자원 봉사자들이나 후원자들의 덕에 이렇게 살아있다고 웃는 언니들의 얼굴이 그리 낯설어 보이지 않았다.

한국으로 오기 얼마 전 신문에 글을 써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다. 한국 대학의 여성 운동에 대해 써달라는 것이었다. 망설이다가 글을 썼는데 주로 한국 대학에서 여성운동이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전환했던 대략의 역사나, 현재 대학 내에서 이슈화된 여성 현안에 대해 언급하였다. 특히 신문사 언니들이 관심을 가지고 재차 물어보았던 것은 '월경 페스티발' 과 '농활에서 여성농민반의 역할' 이었다. 설명하면서 얼마나 뿌듯했던지. '아, 여기에도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살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꽉 차는 느낌. 그리고 한국에 가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도 되는 나날이었다. 특히 내 글이 실린 신문을 한국에서 우편으로 받아봤던 날은 아주 날아갈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KINESIS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신문에서 레즈비언 이슈를 매회 비중있게 고정적으로 다룬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신문사 언니들의 대다수가 레즈비언이기도 했고 실질적으로 레즈비언의 삶에 도움이 되는 상식들이나 레즈비언 운동도 신문을 통해 꽤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물론 그곳에도 많은 호모포비아들이 있지만 여성단체라고 할 수 있는 KINESIS에서 그렇게 명쾌하게 레즈비언에 대한 옹호와 지지를 표명하는 것이 나에게는 한국에서와 어떤 차별성을 보여 씁쓸한 느낌을 주기도 하는 것이었다.

나눔터

이런 일을 했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경찰 교육

6월 13/14일, 6월 28/29일 2회에 걸쳐 양일간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본 상담소와 서울여성의전화가 연대하여 진행하고 있는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통합적인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찰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은 성폭력, 가정폭력 담당 경찰관의 교육을 통해 이들이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고 피해자에 대한 바른 이해 속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교육으로 서울 시내 31개 경찰서 일선 수사관 100명이 참가하였다. 이를 계기로 각 지방의 경찰청과 시민단체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인 피해자 지원체계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며 피해자를 지원하는 경찰 매뉴얼도 제작 배포될 것이다.

사법연수생 사회봉사 연수

7월 3일부터 28일까지 31기 사법연수생의 사회봉사 연수가 진행되었다. 2주씩 2차에 걸쳐 진행된 이번 연수에는 11명이 참가하였고 프로그램으로는 상담소 소개와 성폭력실태에 대한 강의 후에 법적 지원, 사건사례 연구, 고소장, 진정서 작성 등 법적 지원 작업, 토요법률상담 참관 및 변호사와의 만남, 성폭력사건의 사법처리상의 문제점, 성폭력특별법 개정안 검토, 호주제 폐지에 관한 토론, 가정폭력 지원체계확립을 위한 워크숍 참가, 스토킹방지법안 검토, 경찰교육매뉴얼작업 등으로 진행되었다. 연수생들은 성폭력실태를 접하고 여성문제와 인권문제에 실제적인 각성과 훈련이 되었다며 기회가 될 때마다 지원할 것을 다짐하였다.

제 3회 성교육 · 성상담 교사 연수

8월 14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제 3회 성교육 · 성상담 교사 연수가 진행되었다. 학교 교사를 비롯하여 대학생, 학부모, 상담원 등 28명이 이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

육아시설 아동을 위한 성교육 캠프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 동안 지리산 느티나무 산장에서 서울 시내 모 육아시설 중 · 고등학교 학생 34명과 함께 '2000 훌쩍 크는 여름'이라는 제목으로 성교육 캠프를 진행하였다. 이번 캠프는 강의식 성교육에서 벗어나 계곡물에 발 담그고 자연과 함께 하는 가운데 좀처럼 마음을 터놓지 않는 시설 아이들의 솔직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졌다.

열림터 집단상담

열림터에서는 내담자와 퇴소자를 대상으로 2000년 6월부터 8월까지 집단상담을 실시하였다. 집단상담은 매 주 1회 2시간씩 10회 동안 열림터에서 진행되었으며 심리상담전문가가 이끌어 갔다.

예전 집단상담은 여름과 겨울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2박 3일, 혹은 3박 4일간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던 반면 이번 집단상담은 열림터에서 생활하는 중에 일정한 시간을 할애하여 모이는 형태를 가지는 특징이 있었다. 따라서 생활 속에서 내담자의 감정이 상담에 반영되기도 하였다.

집단상담의 내용은 자기소개와 상담목표 정하기를 시작으로 하여 비언어적인 감정표현을 통한 자기이해, 자기노출에 대한 두려움 다루기, 인형이나 촉진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성폭력피해에 대한 비밀깨뜨리기, 성폭력에 얽혀 있는 수치심 표현하기, 상처로부터 감정을 억압해왔던 부분을 탐색하기, 안전한 분위기에서 분노감정 터뜨리기, 자존감 회복하기, 마지막으로 자신의 내면적 혹은 외형적인 변화를 확인하고 서로의 장점을 지지하면서 상담을 종결하기로 구성되고 진행되었다. 이번 집단상담은 대상자들이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집단상담에 대해 생각하고 다양한 심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다. 나눔터

새로 발간된 자료집을 소개합니다.

〈Up grade 섹스북〉

중고등학생, 특히 고등학생을 독자층으로 삼고 만들어진 자료집입니다. 두달 여에 걸쳐 8회에 이르는 성교육을 받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본적인 남녀의 생식 등 성교육의 기초가 되는 부분들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목그대로 한 차원 높은 성교육자료로써 '월경-인류가 존재하는 이유', '성감이 도대체 뭔가요?' '잠깐 그와 나는 동상이몽' 등의 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격 4,000원

〈스포츠에서의 성차별적 관행 개선을 위한 토론회〉

7월에 열린 〈사이버 토론회-여자선수 밀착유니폼에 대한 동상이몽〉과 〈오프라인 토론회-스포츠에서의 성차별적 관행개선을 위한〉의 토론 내용과 발제문이 실려 있습니다. 스포츠의 성차별적 관행, 미디어와 여성스포츠의 관계, 그리고 스포츠와 여성성의 상호작용 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가격 4,000원

상담소(열림터)에 물품을 기증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던킨도너츠, 유한킴벌리, 구나은, 오희옥, 이현선, 이희숙, 한은희, 홍기선

4월부터 6월까지 회비를 내주신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남식, 강명자, 강정옥, 고순례, 구나은, 권진숙, 권혁권, 김강자, 김미숙, 김삼화, 김언정, 김영서, 김윤경, 김은정, 김정희, 김종구, 김준호, 김현란, 김현식, 김혜수, 김혜원, 노미순, 노주희, 류재경, 문해란, 문효진, 민응기, 박귀자, 박미라, 박윤숙, 박희경, 백정선, 백명자, 변인희, 변혜정, 서민자, 신은주, 심수희, 심영희, 안홍례, 양영주, 오길향, 오숙자, 오숙희, 오정현, 오현숙, 오희옥, 우안녕, 유은주, 유자인, 윤용미, 윤지희, 이경로, 이경룡, 이경미, 이경애, 이명선, 이미경, 이백수, 이상엽, 이순례, 이영분, 이원숙, 이윤상, 이주희, 이희숙, 임순영, 임자영, 임종은, 장연집, 장윤경, 장철우, 정남운, 정대현, 정유석, 정연옥, 조정현, 조중신, 지인순, 최동석, 최용득, 최영애, 최정복, 한은희, 하은주, 허라금, 홍승아, 홍은정

4월부터 6월까지 후원회비를 내주신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미정, 고선경, 곽은하, 구길자, 구민지, 김경륜, 김경희, 김도희, 김미경, 김미영, 김소명, 김순형, 김영선, 김영애, 김옥선, 김일륜, 김정국, 김정순, 김정이, 김화영, 박미향, 박수진, 박준규, 박진숙,박하연, 배은경,서성숙, 서천석, 설연자, 송성애, 오남주, 오은화, 우경아, 유숙영 육순향, 이석민, 이상근, 이윤미, 이정선, 이정아, 이푸른메, 이재남, 이재인, 이혜경, 전법용, 전승완, 정윤이, 정경란, 정경래, 조소연, 주서현, 조정자, 최말순, 최옥경, 최유정, 최종혁, 한혜선, 홍성복, 홍숙기, 홍순기

•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런 곳입니다.

1991년 4월 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이래 본 상담소는 지금까지 2만 6천여 회의 성폭력피해자들과의 법적 · 의료적 · 심리적 상담을 통해 내담자들이 피해를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였으며, 성폭력의 원인 및 예방대책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인간중심적인 성문화를 정착시키고, 여성의 인권을 회복시켜 보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여러분의 후원으로 성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 없이는 상처를 극복할 수 없는 사람이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성을 모아주시면 상담소에서는 이를 소중히 받아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하겠습니다. 후원회원이 되시면 본 상담소의 소식지[나눔터]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상담소의 각종 행사에도 초대됩니다. 지금 전화하여 월 단위, 혹은 연 단위로 후원금을 약정하여 주십시오. (예금주 : 한국성폭력상담소)

은행명	계좌번호
국민은행	009-01-1176-632
농협	037-01-194301
조흥은행	308-01-133092
중소기업은행	216-013179-01-018
한빛은행	309-042818-13-002
평화은행	025-01-0000-541
외환은행	224-22-02532-8
한빛은행	441-04-107528
신한은행	219-05-001717

문의 : 하은주 간사 / (02)576-7128

♣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입니다. 귀하(사)가 기부하신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 18조 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에 의거하여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회비는 자동이체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외부 강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상담소에서는 성폭력 예방과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하여 외부 강연 사업을 하고 있으며, "직장내 성희롱" 관련법의 제 · 개정으로 각 기업 내 강연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강의 주제

성폭력 실태와 예방 / 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 / 어린이 성폭력 / 직장내 성희롱 / 학내 성폭력 예방 및 성문화 / 성교육 지도자 교육 / 자녀 성교육 지도 / 유형별 성폭력 상담 방법

※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본 상담소에서는 강의와 더불어 상담소에서 제작 · 판매하고 있는 비디오를 함께 시청하고 토론하는 강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의 의뢰 문의 : 김언정 부장 / (02)576-7128

*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

성폭력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 언어적 · 정신적 폭력으로, 인권에 대한 유린행위입니다. 성폭력은 결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담소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함께 풀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상담, 열림터 : (02)529-4271~2

본 상담소 심벌은 여성을 나타내는 우 가 3개 모인 것으로, 이는 여성들이 손을 잡고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 힘을 모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양쪽의 비스듬한 다리 모양은 피해여성의 자립을 위해 여성들 스스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벌의 색깔은 '여성' 과 '자매애' 를 상징하는 자주색입니다.

●이사 김삼화 · 문해란 · 박찬운 · 이명숙 · 이상엽 · 이은미 · 천병태 · 최영애 · 최보원 · 최은순 · 홍순기 **●감사** 회계사/배자하 세무사/차재능 **●자문위원 교육** 교사/김성애 · 차옥덕 교육학/김인수 · 정유성 · 현기섭 문화인류학/정병호 사회학 · 교육심리학/강영숙 저널리스트/박미라 윤리교사/백영애 청소년교육/이규미 **●법률** 법학/한인섭 변호사/강기원 · 고순례 · 김삼화 · 김의창 · 남성렬 · 박성호 · 박찬운 · 이명숙 · 이백수 · 이유정 · 이향아 · 임종인 · 장경호 · 장철우 · 정성광 · 정연순 · 최은순 · 최현희 경찰/김강자 · 이금형 **●상담** 정신보건사회사업가/오현숙 목회상담가/이재훈 임상심리상담가/전양숙 심리학/김순진 · 김정규 · 이윤로 · 이장호 · 이혜성 · 장연집 · 정남운 사회학/장영복 사회복지학/이영분 · 이원숙 · 한인영 상담심리학/권해수 **●의료** 가정의학/김종구 · 정영숙 법의학/강신몽 · 권일훈 · 문국진 · 서중석 · 이경룡 · 이윤성 · 최영식 · 황적준 비뇨기과/이유식 산부인과/김주필 · 김현식 · 김홍배 · 문영규 · 민응기 · 박금자 · 박종민 · 손인숙 · 윤경 · 이길여 · 이신애 · 이옥주 · 임용택 · 정경원 · 조삼현 · 조정현 · 최보원 · 홍순기 성형외과/정영덕 소아정신과/소은희 · 신의진 · 최보문 외과/오세민 · 주수호 예방의학/이용호 임상병리학/강정옥 · 문해란 정신과/김광일 · 김병후 · 김정일 · 남정현 · 박수용 · 박진생 · 양창순 · 이수경 · 전지홍 · 조맹제 · 최진숙 치과/이상엽 한의학/강명자 · 김영선 · 김효선 · 서은미 · 이은미 · 천병태 흉부내과/안철민 **●재정** 프리랜서/여난영 회계사/배자하 · 임종은 **●정보사업** 통신/김형준 **●홍보출판** 신문방송학/김용숙 · 최선열 언론인/천여옥 여성학/박혜란 · 오숙희 연극/김지숙 출판/ 권혁건 · 이인자 PD/고학찬 조소/홍성도 **●21세기 여성 · 미디어운동센터** 공동위원장/박정순 자문위원 신문방송학/강남준 · 강명구 · 김양희 · 김훈순 · 원용진 · 전석호 논설위원/지영선 **●부설 성폭력문제 연구소** 사회복지학/이원숙 사회학/김준호 · 심영희 여성학/김은실 · 변혜정 · 이재경 · 장필화 · 조주현 · 허라금 철학/이상화 · 정대현 심리상담가/권진숙 아동복지학/장화정 영문학/강경화 청소년연구원/김옥순 법학/김선욱 · 김엘림 · 신용자 사회심리학/김혜원 사학/박진숙 **●소장** 최영애